

# 2024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전



### 공모주제

취·창업을 위해 노력해 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야기

### 공모기간 및 자격

**공모기간** 2024. 5. 20.(월) ~ 7. 19.(금)

**응모자격** 중·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가족,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기업 관계자(기 수상자는 제외)

\*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병장병 중 국가보훈부 지원대상자

### 응모방법

**응모방법** E-mail 접수(vnet@korea.kr)

**원고분량** A4 용지 5매 내외

\*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보훈부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 20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우수상** (4명) : 각 10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장려상** (8명) : 각 5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 응모자(수상자 제외) 전원 모바일상품권(1만원 상당) 지급

### 심사기준

감동 및 진실성, 내용 구성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수상작 발표

2024. 8. 23.(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게시



※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3)

리:스펙 제대군인 2024 July Vol.221

# 리:스펙 제대군인

## 또바기

: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 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 무엇이든 물어보살

Re-Start! 다시 쓰는 이력서



집수리 1인 기업 대표  
오묘한 예비역 육군 대위

Vol.221  
2024 July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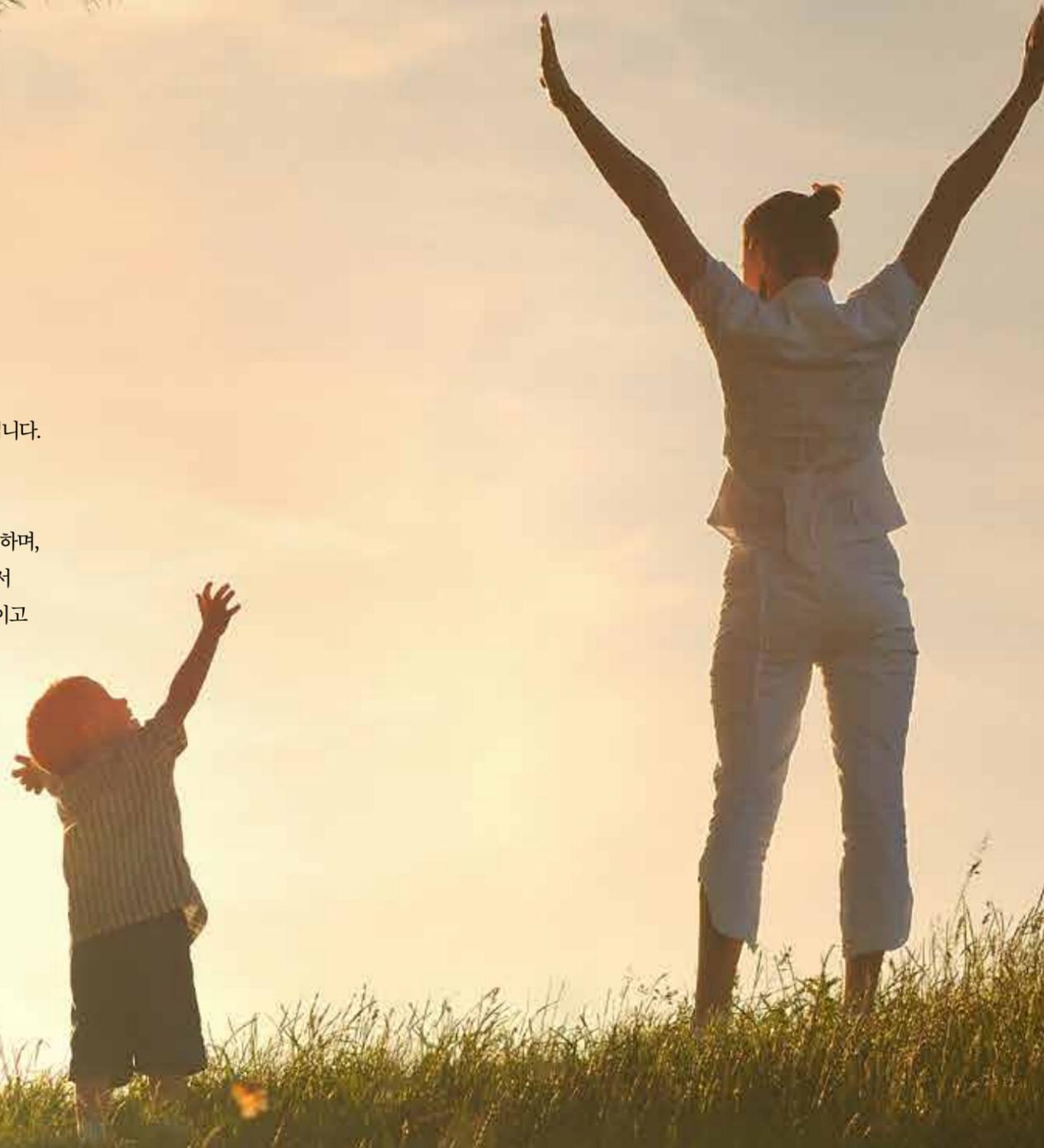




# 또바기

: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변치 않기를, 약속해 줘~” 드라마 대사에서, 노래 가사에서 자주 듣는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단 연인 사이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며 마음을 다잡았던 스스로에게도, 원조 식당 주인장의 손맛에도 ‘한결같음’은 삶의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계절은 매년 순환하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며,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듯...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수많은 변화의 시간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그리고 변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성을 들이고 또 노력해 나갑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7월, 새해의 그 설레던 마음가짐을 다시금 떠올리며 다가오는 시간들을 또바기 채워 봅니다.



# Contents

통권 221호  
 발행일 2024년 7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f www.facebook.com/mpvakorea  
 y www.youtube.com/user/mpvakorea  
 i www.instagram.com/bohun\_story  
 x x.com/hun2day  
 b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Again my Life 라

새 삶의 시작을 응원

### 또바기

: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 06 매치포인트

수십 년 넘게 또바기 사랑받는 삶의 동반자 기업  
동서식품 & 스탠리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 08 리:스펙 히어로

턱걸이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강철부대'의 히어로  
\*오묘한 예비역 육군 대위

### 12 선배의 노하우 Zip

고품격 전시회와 컨퍼런스가 열리는  
최첨단 전시환경의 전기안전을 책임진다  
\*심성민 예비역 공군 중사

### 16 굿 JOB 굿 LIFE

사회 초년생 未生(미생)에서 完生(완생)을 꿈꾸다  
\*주동신 예비역 육군 중령

## Change Work 일

제2의 업을 찾는 방법

### 18 지속 가능한 미래로

100년 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일상의 행복을 높이는 종합 가전기업  
\*신일전자

### 22 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으로 취·창업 역량 강화

### 24 Zoom IN

어디서든 살아보며 자유를 누리는 여행 플랫폼  
\*리브애니웨어

### 26 방구석 1열 오피스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로 알아보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

### 28 꿀팁전당포

내 꿈은 '내 집 마련', 유튜브가 도와줄게!  
\*부동산 정보 유튜브 추천

### 30 백 투더 잡

다음 내용이 궁금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전기수 & 배우



## Better Live 락

즐거움이 있는 삶

### 32 여행 보일지도

배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경복 구미

### 36 무엇이든 물어보살

Re-Start! 다시 쓰는 이력서  
\*CX전문가 최지연 강사

### 38 전국군대자랑

역대 대통령이 해외파병 민사작전을?!  
\*박정희 예비역 육군 상사

### 40 오늘도 ESG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환경오염과의 전쟁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 42 다 함께 PLAY

2024 상반기 결산  
하반기를 시작하는 추천 도서

# 수십 년 넘게 또바기 사랑받는

## 삶의 동반자 기업

### 동서식품 & 스탠리

신생기업 중 7년 넘어서까지 살아남는 곳은 2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곳 중 1곳만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그만큼 기업이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재기업의 경우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커피의 상징과 같은 동서식품과 미국 보온병의 대명사 스탠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글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카누 - 출처, 동서식품



매치포인트



카누 - 출처, 동서식품

### 최고의 발명품, 커피믹스를 만든 동서식품

동서식품은 1968년 창업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커피 업계를 대표해 오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이 발명한 커피믹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이 되었고, 국내에 커피 전문점이 퍼지기 시작하던 2010년대에는 인스턴트 원두커피를 개발했어요. 말 그대로 동서식품의 역사가 한국 커피 산업의 역사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커피의 시작은 미군에 보급되는 커피를 유통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반 동서식품이 미국 제너럴 푸드와 기술 제휴로 생산한 '맥스웰하우스'가 본격적인 커피 시장을 대중화했어요. 1975년 커피 크림 '프리마'를 개발한 데 이어 1976년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개발합니다. 커피와 크림, 설탕이 한 봉지에 배합돼서 맛 좋은 커피를 손쉽게 만들 수 있었던 커피믹스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습니다. 한국을 빛낸 발명품 5위에 선정될 정도로요. 커피믹스를 계속 개선해 오던 중 1989년 동결 건조 기술을 통해 메가 히트작 '맥심'을 내놓게 됩니다. 출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현재에도 '맥심'은 모든 한국 사람이 마셔봤다고 할 만큼 전 국민에

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원두 커피를 찾게 되고, 커피믹스의 수요가 줄게 되죠. 커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해오던 동서식품은 2011년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원두커피 '맥심 카누'를 출시합니다. 카누는 젊은 층에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며 성공해요.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한 덕분에 인스턴트 원두커피라는 새로운 커피 시장에도 자리 잡게 됩니다. 동서식품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커피 시장을 겨냥한 제품과 디카페인 커피도 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나라 커피 시장을 이끌어갈 선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탠리 제품 - 출처, 중앙일보

### 대를 이어 쓰는 보온병, 스탠리

스탠리는 1913년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William Stanley Jr.)가 기존 보온병들이 유리를 사용했던 것을 개선해서 최초의 금속 보온병을 발명하면서 시작됩니다. 스탠리는 올해로 111년째를 맞이하는 오래된 브랜드예요. 충격에도 강하고 진공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 보온과 보냉이 가능했습니다. 1915년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20세기 초 미국 산업 발전의 역사와 맞물려 인기를 끌게 돼요. 스탠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군의 군수품이 되면서 기능을 널리 알리게 돼요. 특히 핵심 전력인 B-17 폭격기 조종사들이 사용하면서 스탠리 보온병은 미군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인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돼요. 미국인이 일하러 갈 때 집에서 뜨거운 커피를 담아가는 보온병이 보인다면 스탠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보온병이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개척과 탐험이 있는 현장에서 스탠리 보온병의 기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뉴욕 '9.11 메모리얼 뮤지엄'에는 스탠리 클래식 보온병이 전시돼 있는데, 미국의 랜드마크 빌딩인 세계무역센터를 만든 근로자의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음식이 식지 않도록 스탠리 보온병에 식사와 뜨거운 음료를 넣어서 주었다고 하죠. 스탠리가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하는 데에 일조한 셈입니다. 스탠리의 진공 단열 병은 현대 보온병 발명 공로로 인정받아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보온병의 역사는 사실상 스탠리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훌륭한 기능성이라는 스탠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많은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스탠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품질은 확실한 거니까요. '스타벅스'와는 꾸준히 협업하고 있고, '슈프림'과 'MINI' 등 다른 산업군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도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SNS와 MZ세대 사이에 스탠리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스탠리의 기능성을 뽐내는 SNS 영상과 다양한 원색의 텀블러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가진 기능성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를 다시 한번 유행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

스탠리 이미지 - 출처, 중앙일보



Stanley

# 턱걸이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 '강철부대'의 히어로

## 오묘한 예비역 육군 대위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역한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생업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기에 빠듯한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다. '강철부대'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세계 신기록에도 도전했다. 타고난 피지컬이 아니라 근성과 심 없는 노력으로 일반인의 한계를 아득히 벗어난 예비역 육군 대위 오묘한 씨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영상 오철민



# Interview



### ○○○ 수리하는 남자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강철부대'라는 TV프로그램을 통해 익히 오묘한 씨를 알고 있었다. TV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탁월한 사격 실력부터 자신보다 훨씬 더 피지컬이 좋은 다른 팀원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압도하기까지 하는 모습,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번뜩이는 두 눈은 영화 속의 히어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선한 눈에 수줍은 미소를 띤 오묘한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짧은 팔 아래로 튀어나온 유난히 굵은 팔뚝을 제외하면 TV에서 보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길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부대 시즌3에 출연했던 707 예비역 대위 오묘한입니다. 현재 집수리 1인 기업 대표로서 '수리하는 남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과 경기북부권에서 일을 하며 천연대리석, 칸스톤, 인조대리석 등 석재 관련 유지보수 시공을 하고 있고 싱크대리폼, 타일부분교체, 각종 구멍복원 등 전반적으로 집 내부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수리 및 교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 후 짧은 기간에 일을 배워서 습득하고 또 1인 기업 대표로 혼자서 영업까지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했다.

"전역을 앞둔 시점에 도배를 하시는 삼촌의 권유로 집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다 보니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돈이 될까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고민보다는 먼저 부딪혀 보는 생각으로 도전을 결심하고 휴가 때마다 집수리 교육을 배웠습니다. 전역 후에 퇴직금으로 화물차량과 각종 공구를 구매하였으며 2달 정도 수익 없이 집수리 교육을 더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현장에 따라가 일을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늦은 시간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역 후에 삶의 여유를 찾기보다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초급간부의 마인드로 처음부터 열심히 배워 지금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강철부대의 히어로’**

생계를 위해 택한 직업 외에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게 만든 것은 바로 ‘강철부대’에 출연한 일이다.

“강철부대 1, 2가 방영될 때에는 제가 현역으로 복무할 때였습니다. 모집공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장교로서 부사관과 다르지 않다. 장교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송 촬영에 임했을 때는 방송에서 제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는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707특전사를 전역한 군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우승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고 후회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24시간 턱걸이’ 세계 신기록을 깨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오묘한 씨가 24시간 턱걸이 기네스 기록에 도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깼었다는 사실이다. 24시간 턱걸이는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턱걸이를 최대한 많이 하면 되는 분야다. 중간에 휴식은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제가 턱걸이 하고는 인연이 좀 깊습니다. 3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생도들을 대상으로 ‘턱걸이 왕’을 뽑는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준비했죠. 결국 ‘턱걸이 왕’으로 뽑혔었고 특전사에 들어가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턱걸이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전역을 했을 때도 마침 국내에서 턱걸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군대에서 1등을 했으니 국내에서도 1등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대회에 참가해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세계에서 1등을 해보자란 생각이 들더군요. 알아보니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24시간 턱걸이’라는 분야가 있었고 기존 기록이 8,600개더라고요. 제가 707특전사 출신이라서 목표를 8,707개로 정했고 TV프



**장교로서 부사관과 다르지 않다. 장교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역 후의 진로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텐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다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Interview

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도 촬영을 나왔었는데 23시간 10분 만에 목표를 달성했어요. 벅찬 마음으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사이 일본 사람이 8,940개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기록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탓에 제가 모르고 있었죠. 만일 알았다면 50분이나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에 다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 지금 하는 일 이외에 오후에 크로스핏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관의 지점장일도 시작하기로 했다는 오묘한 씨는 지금보다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주어진 자리에서 대한의 남아로서 조국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머지않아 사회로 진출할 후배들에게 사회 선배로서 한마디를 부탁했다.

“지금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역하는 마지막 날까지 군인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역 후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텐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다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부딪힐 모든 일들이 다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역한 선배로서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의 앞날이 기대된다. **46**



# 고품질 전시회와 컨퍼런스가 열리는

# 희망단 전시환경의 전기안전 책임진다

심성민  
예비역 공군 중사

Shim Seongmin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으면 자신을 내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십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업종을 경험하다가 지금은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 덕분에 취업에도 성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와 각종 행사 진행 시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예비역 공군 중사 심성민 씨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 Safety



멘타: 멘토님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멘토: 안녕하세요. 한때는 공군 병, 부사관 생활을 하며 직업 군인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지금은 산업 현장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예비역 중사 심성민입니다.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문화관광재단 내 시설관리 전기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변전실, 변압기, 비상발전기, ups장비 등 전기와 관련된 시설물 유지보수와 행사 관련 전기 간선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격증을 취득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Experience

“  
여러분도 공간에  
포기하기만  
않는다면 개개림  
2년 안에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겁니다.  
”



**멘티:** 여러 직업 중 전기 관련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멘토:** 제대 후 공무원 준비 및 대학 졸업 과정을 동시에 하면서 취직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백수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그만두고 국비 지원을 받아 캐드 학원을 이수한 후 특장차 제작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전기라던 부분을 조립, 분해하는 회사였습니다. 업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군 경력은 참고 사항이며, 경력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 정도의 급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전기 직종이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았고 특히 '전기기사' 자격증은 자격증만 있어도 과장급 지위 및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퇴사 후 본격적으로 전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멘티:** 전기 관련 자격증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아니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까. 비결이 있나요?

**멘토:** 제가 전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마침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아파트 영선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줘서 집 근처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전기 실무경력을 쌓았고 퇴근 후에는 전기 공부를 하루 2시간 이상 꾸준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퇴사한 후 퇴직금으로 유료강의를 신청해서 공부한 결과 필기시험을 한 번에 붙었으며, 실기는 1년 동안 새로 다시 공부를 해서 운 좋게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울산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전기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멘티:** 직접 일을 하면서 느낀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멘토:** 확실히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같이 일하는 작업자 간의 사소한 소통에 문제가 있어도 항상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위험한 만큼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험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업무에 정통하고 서로 손발만 맞으면 육체적으로 크게 힘든 일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작업 자체의 장단점도 있지만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근무여건이 쾌적하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워라밸이 보장되는데 다른 곳은 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멘티:** 입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멘토:** 아직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부지런히 실무를 익히고 실력을 쌓아가야겠죠. 위험한 작업이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개

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력을 좀 더 쌓은 뒤에 공기업이나 공단으로 이직하는 방법입니다. 그때에는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쌓여 있으니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겠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열심히 일해서 자본금을 모은 뒤 직접 전기사업체를 차려서 제가 사장이 되어서 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이겠지요. 둘 다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멘티:** 전기 관련 일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멘토:** 첫 번째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 전기과장 직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실무 경험을 쌓아야 전기과장을 할 수 있기에 이왕이면 제대 전에 취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반 자격증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외울 것도 많고 계산도 어려워 혼자 공부하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도 한 번에 붙기 힘든 시험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불어불문을 전공했기에 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2년 안에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겁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반복 연습하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도 2년, 4년 실무가 있어야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이니 전기 일을 시작하실 때는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전기분야 관련 자격증

**전기기능사:** 전기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자격. 응시조건 없음. 필기과목 3과목, 실기는 작업형(직접 조립 또는 설치하는 작업)

**전기산업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급 자격증 시험. 응시조건(동일(유사)분야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실무경력 2년). 필기과목 5과목, 실기 주관식

**전기기사:** 전기분야 기사급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조건(산업기사 이상+실무 1년 이상, 실무경력 4년, 관련학과 전공자). 필기과목 5과목, 실기 주관식

## 사회 초년생 未生(미생)에서 完生(완생)을 꿈꾸다

주동신  
예비역 육군 중령

2023년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전 장려상(요약본)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  
(~ 7월 19일까지)

1985년 4월 봄날에 청운의 꿈을 품고 상무대에서 장교 후보생 교육을 받고 육군 소위 의정장교로 임관하여 보병 제6사단 GOP 대대 의무지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환갑을 넘기는 나이가 되었다. 직업군인의 삶이 힘들 것 같고 두려웠다는 와이프를 만나 전방에서 후방까지 약 20차례 보따리 이사를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군복이 좋아 가족을 설득해 가면서 행복하고 보람차게 군 생활을 했다. 국가와 나의 발전을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서부 사하라 해외 파병을 지원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파병 지역의 기후와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스러웠지만, 그보다도 연고도 없는 종합정비창 관사에 와이프와 유치원생 어린애들을 남겨 둔 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그 시절 국제전화의 한계에 인터넷 메일로 안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 외로움은 더 깊어갔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파병된 외국 군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군사 외교관 역할을 했던 보람은 아직도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 거기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육군 중령으로 진급한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이었다.

대령 진급에 실패하고 인생 2막의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라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군 경력으로 취업하려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제한적이었고, 사업을 하기에는 경험이 없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불안함 때문에 자신감은 날로 추락하고 있었다.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하여 상담사와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년이 없

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듯했다. 그 후 2개월 동안 독서실에 출근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첫 1차 시험에서 낙방하였다. 다시 총전하고 주간 학원을 다니려고 알아봤으나 거리와 시간으로 따져볼 때 인터넷 강의를 효율적일 것 같았다. 이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지원받아 주택관리사 인터넷 과정을 신청하고 독서실에서 휴일 없이 1년 동안 준비했다. 하지만 두 번째도 1차 시험에서 낙방하였다.

낙방하고 며칠간은 잠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 절실하게 준비했는데, 미래가 막막했다. 고민 끝에 나이가 들어 암기력과 이해력이 떨어져 공부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하고 이력서를 서른 군데 넘게 제출했다. 그러나 단 한 군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사업 주체를 찾아갔으나 이력서를 놓고 가라고 할 뿐 연락은 없었다. 지인을 통해 처음으로 건물 유지보수 용역 업체의 면접이 성사되었지만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50대를 찾는 사업장은 없는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냈다.

하지만 계속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다시 선배들의 조언을 얻어 화물기사로 창업하기 위해 대형운전면허증(버스 면허)과 화물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화물 운전 창업도 쉽지 않았다. 경험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취업도 창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에만 있으니 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았다. 무직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인들을 찾아가는 것도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혼자 지내는 시간에 지쳐갈 뿐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무슨 일이든 하려고 찾다가 이삿짐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후배를 따라다니며 현장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노동 강도가 높고 역대가 넘는 자본금을 들여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가족과 형제들이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직업이라고 말려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으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해 놓았으니 당장 어디든지 면접 일정이 잡힐 것 같은 생각에 계속 기다리다 보니 전역하면 하고 싶었던 여행마저 포기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 31년 동안 고향을 떠나 전국 각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다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하였으니 주변에는 친구도 지인도 없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같은 또래는 아직 젊은 나이로 그런지 취업하지 않고 쉬는 사람 또한 없었다. 전직지원교육 1년을 마치고 전역을 한 후 6개월을 혼자서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취업에 도전했으나 역시나 취업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인생 2막 사회의 미생(未生)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군에서 배운 기획, 행정과 통솔, 지휘 능력을 발휘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모색하다 다시 심기일전하여 주택관리사 시험에 세 번째 도전하게 되었다. 주택관리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남은 6개월 동안 휴일 없이 또다시 독서실로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하였다.

그 후 도전 3년 차에 주택관리사 1, 2차 시험을 동차 합격하여 취업 전선에 디딤발을 만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소방안전관리사 2급, 전산회계 2급, 위험물안전관리사, 승강기안전관리사, 수도안전관리사, 건축물안전관리사 과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에게 자격증 취득 현황을 제출하고 취업 정보를 공유했다. 드디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오금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소개받아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다. 그 결과 당당하게 제2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사회의 미생(未生)에서 탈출하여 완생(完生)하는 것인가? 무직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과거 중령으로 진급한 날보다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다. 가족들 보기가 더욱 떳떳해졌으니 남편으로 아버지로 역할과 자리를 다시 찾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위로하던 가족들도 취직되었다 하니까 모두 격하게 축하해 주면서 나이 들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에 성공한 가정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보람과 행복감으로 자존감을 되찾은 것 같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할은, 책임자로서 모든 직원을 채용·관리·지도하고 예산을 수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결산을 통해 관리비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입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공용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며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 생활에서 경험한 기획 및 행정 업무는 문제가 없으나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었다. 업무 처리에 있어 관리사무소장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관례대로 일을 처리하는 집단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회 초년생이라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때론 관리사무소장이 직장 내 갑질을 한다고 파출소에 고발당해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받기도 하고, 해고를 강요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소명하러 다니기도 했다. 특히 군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공동주택 근로자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옆 단지의 월급이 많거나 기본이 나쁘거나 일이 힘들다고 느끼면 당장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인력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애로 사항이 많은 현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직접 세대 전용 시설물을 유지 보

수해야 하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관리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억지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입주민과 직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들은 서로 존중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반자인데도 마치 본인들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갑질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집사이며 머슴이기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사회생활 초년생으로서 적응기라고 위로했다. 아울러 힘들었던 지난 사회생활 미생(未生) 시절 빛도 없는 터널에 들어와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도 잡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명품 관리사무소장으로 사회생활에 완생(完生)하여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 조직원으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6년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 때론 직원들과 같이 조경을 하고 도로를 정비하며 보도블록도 교체하는 한편, 비가 오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눈이 오면 제설을 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금도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더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사 1급 자격증을 획득하고 기계설비기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으며, 직원 교육 및 지도를 위해 법정 교육자 과정, 산업보건안전관리감독자 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공동주택 관리법, 소방안전관리법, 건축법,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규약 준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시도 조례 등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여전히 난 전직 군인이며 예비역으로 군에서 배운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지도·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땀땀이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본인은 군 장교 출신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사회 적응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생(未生)이지만 여전히 완생(完生)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언젠가 과거를 회상하며 준비 없이 뛰어들어 사회생활 적응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한다.

아울러 이런 점을 전역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 사회 초년생으로 전역하기 전에 전역 후 나아갈 진로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실행하되 포기하지 않겠다는 근성을 가져라. 그것이 인생 2막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반드시 존재하며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 100년 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일상의 행복을 높이는 종합 가전 기업 '신일전자'

1959년 소형 모터 제조사로 시작한 신일전자는  
우수한 모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풍기를 생산하였다.  
국내 선풍기 보급에 앞장서며 오랜 세월 대표 선풍기 제조사로  
자리매김한 신일전자는 대한민국 종합가전 기업을 지향하며,  
특정 품목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정윤석 대표



박지훈 주임



차현준 사원

선풍기 하면 '신일전자'라고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한데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정윤석 대표 \_\_\_\_\_ 65년 역사의 신일은 선풍기, 난방가전, 생활주방가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선풍기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18년 연속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의 수상을 기록하였고 팬히터, 에코히터, 무무가습기를 비롯해 롤링스톤 물걸레 청소기, 믹서기, 청소기, 전기렌지 등의 히트 모델을 출시하고 있으며, 하절가전뿐만 아니라 난방가전과 생활가전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객 니즈를 분석하여 가성비 높은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였고, 지속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 후 느낀 장단점이 있나요?

○ 정윤석 대표 \_\_\_\_\_ 온라인 검색을 통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제대(예정) 군인이 군 조직 내에서 쌓아온 경험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경험한 조직생활을 통해 입사 후 빠르게 적응하였고, 맡은 직무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매사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충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기르고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대군인 채용 후 세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기업에서 유사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경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수행한 업무와 경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면접 전형에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군인이 일반 기업체에 입사 시 경력을 타당하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또 경력 인정이 불가하면 연봉을 포함한 직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일전자에는 어떤 계기로 입사하게 되었나요?**

○박지훈 주임 \_\_\_\_\_ 신일전자는 평소 저에게 친숙한 브랜드였고 근무해보고 싶은 기업이었습니다. 어느날 뉴스에서 '3대가 사용한 선풍기 기증'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1979년 당시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고 그해 여름 신일선풍기를 구매하여 3대가 사용하며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함께하였으며 이제는 엄마의 품(신일)으로 돌려보낸다'는 손편지와 함께 기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 6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라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차현준 사원 \_\_\_\_\_ 저는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신일전자 또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고,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항상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신일전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담당 직무 또한 저에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제가 상품기획팀에 지원한 이유는 제품의 초기 기획부터 최종 출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중요한 핵심 부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혁신과 품질을 중시하는 신일전자와 함께 동반성장과 싶습니다.

**막상 입사해서 근무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박지훈 주임 \_\_\_\_\_ 매순간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싶었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 같은, 친구 같은 동료들로 인해 매일 아침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동료들과 대면 인사를 나누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바쁘게 일하던 와중에도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잠시 업무를 멈추고 모두 환하게 웃으며 환영해준 모습에 이렇게 밝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다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2월 입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고 유쾌한 사무실 분위기가 신일전자의 단단한 내부 결속력을 만들어 준 거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책 한 권은 충분히 나올 분량이어서 타사와 다른 이곳만의 특징으로 기업의 분위기와 동료들을 뽐게 되었고 아직까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차현준 사원 \_\_\_\_\_ 아직 저연차 직급이지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저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기업과 임직원 간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 회사와 차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지훈 주임 \_\_\_\_\_ 소통을 위한 창구가 다양하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렌드십 데이'라는 내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월 1회 랜덤으로 4~5명씩 조를 구성하여 식사를 하며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업무적으로 접점이 없거나 친분이 없는 동료와도 교류를 하며 친분이 생기고 송년회 때는 최고의 인증샷을 선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티타임, 매월 2회 진행되는 자유스피치시간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신일전자가 현재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현준 사원 \_\_\_\_\_ 보통 일을 하다 보면 타 부서 동료와 친해질 계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프렌드십 데이나 직급별 스터디 외에도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사내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다른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 과정 속에서 쌓아온 관계 형성은 협업 진행 시에 그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부터 20분간 '멍시'라는 휴식시간을 가지는 등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사회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박지훈 주임 \_\_\_\_\_ 조언을 하기보다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고생한 모든 군인 후배분들께 밝은 미래와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차현준 사원 \_\_\_\_\_ 저 또한 경험이 많지 않아 선뜻 조언을 건네기는 어렵지만,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진하게 경험하기 위해 노력할 거 같습니다. 군복무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작은 경험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유튜브를 통해 더 생생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군복무도 진하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작업이라도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대충하는 것보다는 몰입을 해본다면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왜 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몰입하고 성취감을 느낀다면 남들과 같은 시간이지만 깊이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

shinil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으로 취·창업 역량 강화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직 목표에 맞는 취·창업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 직업교육훈련 운영체계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 지원대상: 전역 후 3년 이내 미취·창업 상태인 사람  
\* 전직기본교육 미수료자는 지원불가
- 지원과정: 취·창업 목표와 연계되는 시험, 자격증 취득 과정 등
- 교육비: 1인당 150만 원 한도, 수강 과정의 80%(자기 부담 20%)
- 지원절차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신청대상: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단, 센터 회원가입 및 보훈관서 제대군인지원대상 등록자여야 함
- 지원과정: 1인 평생 3과정까지 지원
- 2024년 교육과정: 44개(일반 43개, 4차 산업혁명 1개)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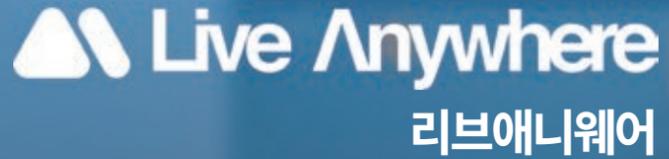


## 사이버교육

- 신청대상: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현역의 경우 각 군 본부로부터 신청 통보된 사람
- 학습과목: 1인당 월 3과목(연 12과목), 수강신청 : 전월 10일~20일
- 교육비: 국가보훈부 지원, 교재비 6권(자부담 50%)
- 접속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http://vnet.multicampys.com>) 바로가기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속



## 어디서든 살아보며 자유를 누리는 여행 플랫폼



요즘 유행하는 여행 관련 키워드가 있다.

바로 '한 달 살기'다. 관광만을 목적으로 잠시 다녀오는 여행과 다르게, 장기간 머물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지역에 대해 알아가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차이가 매력이다. 리브애니웨어는 '한 달 살기'의 가장 큰 고민인 숙소 걱정을 덜어 준다.

글 이재경 사진 리브애니웨어 제공



### 자유롭게 어디서든 살아볼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하루, 이틀 놀러 오는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한 달 살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웃처럼 느껴진다는 한 펜션 사장님의 말에 리브애니웨어는 힘을 얻는다. '한 달 살기'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의 설렘과 익숙한 장소가 주는 편안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여행 방식이다. 리브애니웨어는 원하는 때에 어디서든 살아볼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하며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간을 확보하고, 인터넷, 교통, 놀거리, 먹거리 등 편의 서비스도 챙겨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리브애니웨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호스트와 투숙객 모두가 만족하며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도 고안 중이다. 실제 이용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파악하려 리브애니웨어 현직자들이 직접 리브애니웨어의 '한 달 살기'를 체험하고 후기를 남기기도 한다. 리브애니웨어의 구성원 모두가 서비스에 애정을 가지고 소통하며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더 다양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다

리브애니웨어에는 전 세계 163개 도시의 2만 5천여 곳 숙소가 등록되어 있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발리로도 진출해 달성한 수치다. 해외만으로도 태국에 1000곳, 말레이시아에 100곳, 인도네시아 발리에 500곳의 숙소를 확보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인 설립 3년 차에 누적 투자금 75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리브애니웨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전을 실현할 길을 모색한다.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를 마친 이용자들이 앱 내에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리브후기' 서비스를 론칭했다. 또한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의 조지아, 체코의 프라하,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숙소를 확보했던 지역 이외에 서해안 인근 지역 등의 숙소도 확대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살아 보는 여행의 가능성을 포착하다

2020년 출발한 리브애니웨어는 그 이름처럼 어디서든 살아보는 세상을 꿈꾼다. 어디서든 살아볼 수 있도록, '한 달 살기'를 위한 숙소 예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김지연 대표는 중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과 KTX '내일로'를 통한 국내 여행 경험, 여행 플랫폼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여행 산업의 가능성을 포착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의 서비스가 성장하며 자유 여행과 현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한 달 살기' 여행이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장기 여행만을 위한 숙소 예약 서비스는 없었다.

리브애니웨어는 그 점을 공략했다. 원래는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숙소 예약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코로나19로 변한 상황에 맞추어 방향을 전환했다. 리모트 근무 활성화와 해외여행의 어려움으로 증가한 국내 여행 수요를 파악하여 제주, 강원도 등으로 발품을 팔아 숙소들을 확보했다. 실제로 투숙 중인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서비스의 퀄리티도 높였다. 그 결과 현재 리브애니웨어의 앱 다운로드 건수는 180만 회를 넘어섰다.

### 취향 맞춤형 숙소 예약으로 걱정 없는 장기 여행

리브애니웨어 서비스는 투숙 기간, 숙소 형태에 따라 손쉽게 원하는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세분화했다. 일주일 이상의 원하는 기간과 가격대를 선택 가능하며, 오션뷰, 숲세권, 시골살기, 마당, 돌담, 워케이션, 반려동물 등 인기 있고 이슈가 되는 숙소 키워드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많은 호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리브애니웨어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발 빠르게 시작한 서비스로 국내 전체 지역과 해외의 치앙마이, 방콕, 조호바루, 다낭, 발리 등 '한 달 살기' 인기 여행지들의 숙소를 다양하게 확보했다. 오래 묵은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숙소들은 부엌과 세탁 시설도 갖추고 있다.

숙소 예약의 안정성도 장점이다. 기존에는 부동산카페나 공인중개소를 통해 어렵사리 숙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겨우 계약을 하고 나서 숙소에 도착하니 숙소가 없거나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리브애니웨어를 이용한다면 이런 리스크 없이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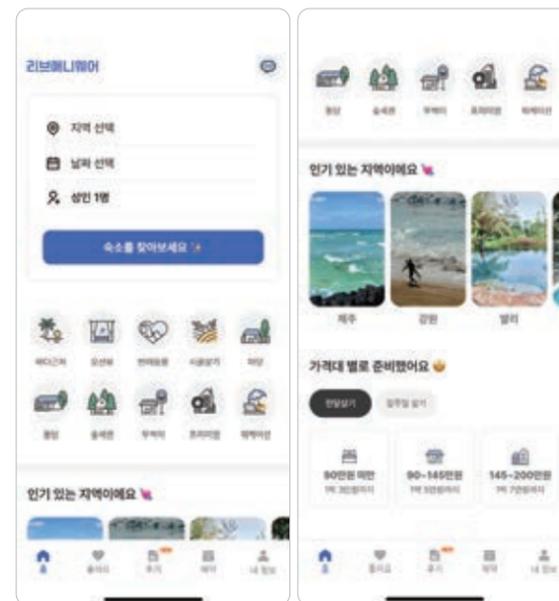


사진 출처 tvN

##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로 알아보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

정리 편집실  
자료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건에 달하는 산업기술의 유출이 일어났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산업 기술을 소중히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 버티는 회사가 강한 회사다!

대기업에 청소기 부품을 납품하던 청일전자는 자체 브랜드 청소기를 생산해 중국 수출에 성공한다. 청일전자의 말단 경리인 이선심(이혜리)은 경리 팀장 구지나(엄현경)의 꿈에 넘어가 대출받은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산다. 그러나 갑자기 사장은 사라지고 구지나는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한 뒤 잠적한다. 청일전자를 살리기 위해 이선심이 사장이 되자마자 부도 위기를 맞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합심해 고군분투한다. 한편 TM전자 생활가전부 구매팀 차장 황지상(정희태)은 하청업체에는 단가를 후려치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불법을 종용하며, 하청업체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 인멸에도 철저한 인물이다. 회사를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청일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 Q.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기술지킴서비스)와 물리적 보안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 등 인터넷 트래픽 및 웹페이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의 내부 정보 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을 돕는다.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 Q. 신청 절차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중소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온라인)
- ☑ 기술지킴서비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monitor@kaits-info.or.kr)

## Q. 지원내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기술지킴서비스

#### 보안관제서비스

-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PC, 서버(파일서버, 웹서버 등)에 대한 온라인 해킹 시도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신속히 조치·대응
-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서비스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 중요문서가 내부 임직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
- USB, E-Mail, 출력물 등을 통한 기술유출 징후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중소기업 보유 PC의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및 불법암호화 예방

# 내 꿈은 '내 집 마련', 유튜브가 도와줄게!

• 부동산 정보 유튜브 추천 •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룰 수 있는 법!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이리 쫓고 저리 내리는 집값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 주목해보자. 투자법과 전망 등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정보를 들려주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다.

01



## 부익남TV

어렵기만 한 부동산 시장, 누군가 이야기처럼 들려 줄 순 없을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익남TV를 구독해보자. 주식 등의 재테크 정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채널이다. 인구감소, 총선, 재건축 등 사회현상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에 따른 집값 변화를 예측해주어 부동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집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시리즈도 인기가 많다. 발품 팔아 모델하우스에 가지 않더라도 새 아파트의 주방이나 화장실, 벽지나 바닥 등을 더욱 꼼꼼히 볼 수 있어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02



## 고단백부동산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고단백부동산을 소개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족', 전세사기, 미분양, 집값 폭락 등 부동산 시장의 다소 어두운 주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불안한 구독자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나 특이한 건물 등에 관련한 역사나 설계 과정, 전망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가며 흥미를 더하고,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를 통한 뉴스레터도 꾸준히 업로드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03



## 쇼킹 부동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제도인 주택청약. 접수 시기는 물론이고 청약 조건, 예상 분양가 등 자세한 사항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쇼킹부동산 채널을 구독하면 조금 더 발 빠르게 구체적인 청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가치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이기도 한 아파트 입지 조건을 다루는 시리즈에서는 서울·경기권과 청주, 광명 등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추천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하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강조되는 텍스트와 이미지 덕분에 어려운 내용도 이해가 쉬워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04



## 라이트하우스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등대가 되어 주는 '라이트하우스'를 소개한다.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강렬한 문구가 인상적인 썸네일인 라이트하우스의 인기비결이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전세, 건설사의 부도, 환율 등 경제 원리와 부동산의 상관 관계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현시점에 꼭 필요한 투자에 눈이 밝아진다. 스트리밍을 통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 깊이 있는 영상을 골라볼 수도 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도 부동산 관련 특강과 소식, 지역 분석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전기수 & 배우**

# BACK TO

소설을 맛깔나게 읽어 주는 낭독 전문가  
**전기수**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큰 인기를 얻었다. 점차 향유층이 증가하고 작품 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설은 대중적인 문화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설을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읽어 주는 낭독자 '전기수'가 등장했다. 글을 읽지 못하거나 책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수가 필요했으므로 전기수는 이들을 통해 돈을 벌었다. 한참 소설을 읽어 주며 몰입감을 고조시키다가, 이야기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갑자기 읽기를 멈추고 구경꾼들이 돈을 던져 주기를 기다렸다. 이를 '요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충분히 돈이 모이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숙향전, 심청전 등 당시에 유행하던 소설을 읽어 주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리 밑, 시장, 담배 가게 등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 앞에 불러 가 낭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수가 소설을 단순히 읽어 주기만 한다면 이 정도의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전기수는 책을 모두 외워서 가락을 넣어 유창하게 읽으면서, 다양한 표정과 어울리는 목소리로 등장인물을 연기했다. 이런 전기수의 모습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중 '담배 썰기'라는 작품에도 나타나 있다. 조선 후기에 활약했던 전기수들은 서민들에게는 사랑받았지만 사대부들에게는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야기와 소설을 불온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를 지나 1960년대까지, 전기수는 오래도록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소설을 생생하게 읽어 주며 즐거움을 전했다.



# THE JOB

이야기란 인간 사회에서 늘 중요한 요소였다. 사소한 수다부터 장대한 신화까지, 인간 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구심점으로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작품에 생동감을 더하는 연기 전문가  
**배우**



오늘날에도 실감 나는 연기로 사람들을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 연극 속에서 열연을 펼치는 배우들이다. 조선시대에 전기수가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배우들 역시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수와 배우는 모두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직업이지만 혼자서 모든 배역을 맡는 전기수와 다르게 배우들은 보통 특정 등장인물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캐스팅된 역할에 대한 해석은 배우에게 달렸다. 배우는 배역의 성격을 비롯해 작품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연기에는 배역 및 연출에 대한 배경지식과 관찰력 및 분석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연기를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면 좋지만, 한 가지로 정해진 길은 없다. 배우 지망생들은 연기학원이나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방송사 공채나 오디션에 도전하기도 하며, 극단에서 활동하다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하는 배우들도 있다. 여러 작품으로 이름을 알리는 유명 배우가 되려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배우는 매력적인 직종이다. 잘 짜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감동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연기해 볼 수 있으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다. 쉽지 않은 길을 도전하는 배우 지망생들이 언젠가 빛나는 별이 되어 대중들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

배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 경북 구미

휴가를 떠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유명한 피서지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런 때에, 인파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의 내면을 채우는 구미로 낭만적인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글 이재경 사진 구미시청 제공



### 구미에서 탄생한 우국충정의 아이콘 왕산허위선생기념관

첫 번째 행선지인 이곳에는 왕산 허위 선생의 묘소와 유허비, 오늘의 목지인 기념관이 모여 있다. 구미 출신의 왕산 허위 선생은 개항기 의병이자 항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을미의병을 일으켰으며 13도 창의군을 이끌기도 했다. 2009년에 개관한 기념관 내부는 왕산 허위 선생의 업적에 대해 차분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여러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추모의 장, 훈장실, 전시실, 영상 추모관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기획전 시설에서는 때마다 다른 전시를 선보이고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 기념관을 모두 살펴본 후 아직 더위가 한창이 되기 전, 밖으로 나와 유허비와 묘소 쪽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 본다. 유허비는 추모의 말을 적은 비석으로 허위 선생의 발자취에 대해 경건하게 생각해 보게 만든다. 옆으로 이동하면 잘 가꾸어진 묘소가 있다. 묘소를 둘러보면서 왕산 허위 선생의 우국충정을 기리며 기념관 관람을 마무리한다.

●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28-33



### 과학도 친근하고 따뜻할 수 있다 구미과학관

다음 코스 역시 실내로 이어진다. 무더운 여름, 피서의 방법도 갖가지다. 구미과학관의 선선한 실내에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을 조금 더 가깝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동락공원에 위치한 구미과학관은 멀리서 보는 외관부터 과학을 떠올리게 하는 은색 돔형 구조물과 함께 지어져 있다. 지하에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다목적 강당이 있으며, 평소 관람이 가능한 곳은 1층과 2층이다. 먼저 1층에는 플라네타리움, 4D 상영관, 영상관리실이 있다. 밖에서 마주쳤던 거대한 은색 돔의 정체가 바로 이곳, 플라네타리움이다. 2D와 3D로 천문 우주 영상을 체험할 수 있어 낭만을 더한다. 4D 상영관에서는 주말에 하루 5회의 상영이 이어진다. 2층은 조금 더 과학 속으로 빠져드는 공간이다. 기초과학관, 우주관, 디지털관, 융합관, 옥외전망대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 들어서면 어린이들이 신기해할 것 같은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진행 중이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 같은 체험으로 과학과 친해져 보는 것도 좋겠다.

●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219-1



### 지식이 소복이 모인 포근한 문화 아지트 삼일문고

여기까지 왔다면 머릿속에 역사와 과학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식을 담는 그릇인 책으로 가득한 곳, 삼일문고로 향한다.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다. 책을 판매하는 공간 외에도 지하 강연장 및 소강연장, 1층의 전시실, 카페, 만화 도서관, 중고도서 판매점, 아트센터 DA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한다.

층별로 어린이관·가정관, 신관·지식관, 학습관·놀이관이라는 다른 테마를 부여해 책으로 꽉꽉 채웠다.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서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삼일문고를 둘러보다 보면 오프라인 서점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카페에서 잠시 쉬며 음료를 한 잔 즐겨도 좋다. 취향 따라 문화 생활을 즐겨 보자. 신간까지 구비한 만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읽거나, 진행 중인 전시를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있다.

●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 6

### 신라의 오랜 역사를 품은 곳 신라불교초전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은 신라불교초전지다. 신라불교초전지는 이름 그대로 신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곳을 뜻하며, 고구려 승려인 아도 화상이 처음 불교를 전해준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됐다. 넓은 부지의 신라불교초전지 내에는 여러 건물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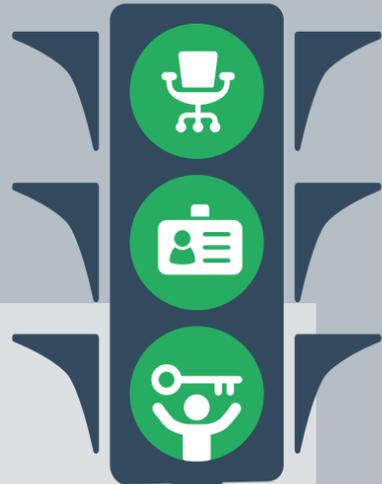
그중 기념관으로 먼저 향해 본다. 이곳은 '아도(阿道) 신라로 향하다', '신라, 불교의 향이 퍼지다', '신라, 불교의 꽃을 피우다'라는 세 가지 문장의 스토리텔링 전시로 구성되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가옥으로 가면 의·식·주·법의 네 가지 주제로 꾸며진 신라 당대의 생활문화를 구경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약으로 운영되는 사찰음식체험, 향낭 만들기, 초전지 프로그램 등 체험프로그램과 전통가옥에서 숙박하는 전통가옥체험도 있으니 미리 살펴보고 알찬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㉞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Re-Start! 다시 쓰는 이력서

글 최지연 강사(CX전문가)



**Q** 안녕하세요. 직업 군인으로서의 삶을 정리 중인 30대입니다. 막상 새로운 일로 뛰어들려니 겁이 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은 뭔지, 하고 싶은 일은 또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남들은 학교도 다시 가고, 취업도 잘만 하던데 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느릴지라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1. 초조해하지 말자!**  
(마인드 컨트롤 노하우)

새로운 도전이 걱정인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제가 이직에 성공하고 나서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사자성어 조삼모사\*가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비효율적으로 이직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 노하우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계획이 없고 계획 없이 진행되는 일은 당연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목표 정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을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삼모사: 눈 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2. 아는 만큼 직업이 보인다**  
(목표 정하는 노하우)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유튜버, 웹툰작가, 학원 선생님 등으로 대부분 현재 알고 있는 것 중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직업 외에도 흥미로운 직업이 많아요. 과거에는 조언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주위에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흥미로운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중요한 건 자격 조건, 우대사항을 확인하며 '당장 취업이 가능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되고 싶은 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압박

이나 부담은 내려놓고 가볍게 워크넷 직업정보, 커리어넷, 한국자격증정보원 등에 접속해서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 3가지 이상 골라보세요.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직업을 찾았다면 이제 2단계, 지금 당장 구인구직 사이트에 찾은 직무 위주로 검색해서 나오는 회사 중 내가 희망하는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의 산업군과 조직문화 후기, 뉴스 등을 찾아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고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해보세요. 저는 가고 싶은 회사를 찾을 때 아직 갈 수 있는 경력도, 자격 요건도 맞지 않지만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즐겁게 찾았어요.

**3.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계획 세우는 노하우)

이제 가고 싶은 회사를 정했다면 세 번째 노하우는 우대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면서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관련된 자격증일 수 있고, 아니면 경력, 학력, 어학능력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격증과 어학능력은 학원을 다니면서 취득하시면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학력과 경력을 쌓는 방법은 실제 성공사례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계획에 참고해 보세요.

**학력이 아쉽다**

**3-1 노하우\_방통대, 야간대 등**

**모두 서류에서 학사로 인정**

하고 있는 직무가 좋다고 말하던 친구인데 생산직 위주로 채용공고를 보여주며 이직 상담을 요청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학력이 안돼서 다른 곳은 아예 서류도 못 넣어"라면서 도전도 하지 않고 학력을 보지 않는 곳 위주로 눈을 돌려서 찾은 거라고 하길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학력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라고 설득해서 결국 제 지인은 회사를 다니면서

방통대를 졸업하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만약, 학력이 아쉽다면, 학력도 꼭 계획에 넣어주세요.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다**

**3-2 노하우\_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관련된 직무**

**신입으로 하향지원, 계약직 활용**

최근 평생직장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이 희미해졌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는 핵심요소인 '정년보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한 번에 취업이 어렵다면 정규직, 계약직을 따지지 않고 취업하시거나 관련된 직무로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신입을 채용하는 곳으로 하향지원하셔서, 최소한의 경력을 쌓고 다시 도전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계약직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계약직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관련 경력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구분해서 보지 않고 관련된 직무에 대한 경력을 모두 인정을 해주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2개의 회사를 계약직으로 근무한 저는 이직을 준비할 때마다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이직을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경력을 인정받고 이직에 성공했어요. 만약 한 번에 가고 싶은 회사를 갈 수 없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바로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므로 1~2년 뒤에 다시 도전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사람들 모두, 원하는 일을 하게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 역대 대통령이 해외파병 민사작전을?!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2006년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

그럼, 오늘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사단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자이툰 학교 재건 완공식

이봐! 박정희 담당관!

우리 자이툰 부대가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사! 박정희!

오호! 박정희 담당관!

오늘 태권도 시범 부상 인원을 대신해서 정말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역시 역대 대통령이라 일을 아주 잘하는군!

ㅎㅎ 농담이야.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저도 역대 대통령입니다.

스웁...

어기

말다! 인사장교도 이름이 역대 대통령과 같지?

감사합니다!

대위 김영삼!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저 빼놓으시면 섭섭합니다.

저도...

아악!

그...그렇지. 정훈공보부 담당관 이름이 이승만이었지...

상사! 이승만! 그렇습니다!

저도 쿨럭! 쿨럭!

사단장님! 저도...

아아!

맞대 군의관 자네도...

대위! 김대중!

이건 정말 기적 같은 확률이 아닌가...

어떻게 한국에서 7천백km 떨어진 이라크 아르빌에 역대 대통령이 5명이나 모였다니...

박정희 김영삼 이승만 김대중

누가 들으면 거짓말인 줄 알겠어.

정말 기막힌 우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명인데 한 명이 더 있습니까?

누구?

저기 있잖아. 사단장 운전병.

병장! 노태우!

하하!

대박!

이 이야기는 후일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자이툰 4진 해외파병을 무사히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자이툰의 명성 역시, 대한민국 국군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예비역 육군 상사 박정희-

#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환경오염과의 전쟁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비닐봉지 필요하세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날만큼은 당당하게 거절해 보자. 비닐봉지는 가볍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만큼 쉽게 버려지면서 지구와 야생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 1

#### 혁신의 비닐봉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다

1959년 스웨덴의 공학자 ‘스텐구스타프 툴란’이 처음 개발한 비닐봉지는, 당시 유럽에서 종이봉투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벌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봉투의 발견은 획기적이었다.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고 변형이 쉬워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비닐봉지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땅속에서 분해되는 데에만 약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비닐봉지의 두 얼굴이 드러나고, 1990년대에 태평양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면서 비닐봉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다 2008년 7월 3일 스페인 국제환경 단체인 가이아가 제안한 환경 캠페인,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 제정되었다.



### 2

#### 바다생물과 환경에 치명적인 독, 비닐 쓰레기

비닐봉지는 생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폐기될 때에도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썩지 않는 비닐봉지가 땅을 덮게 되면 토양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토양오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소각은 어떨까. 비닐봉지를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환경호르몬과 일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 온도가 상승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들이 바다로 흘러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고래나 거북이가 비닐봉지의 모습을 보고 해파리나 오징어로 착각해 삼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사망한 고래의 뱃속에서 80장의 비닐봉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소화되지 않는 배속 쓰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다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호주 해양산업연구소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바다생물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3

#### 친환경 비닐봉지 개발, 기업의 친환경 솔루션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바스프’에서는 ‘이코비오’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이코비오는 비닐봉지, 포장 랩, 음식물 쓰레기 봉지, 커피 캡슐이나 식품 포장지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분해되어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회용품에 대한 최선의 환경친화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소셜벤처기업 ‘리와인드’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옥수수, 사탕수수과 밀짚 등의 천연소재로 테이크아웃 용품을 제작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소중한 자원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사용이 끝난 제품은 수거해 자연으로 ‘리와인드’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행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루만큼은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돼요”라고 외쳐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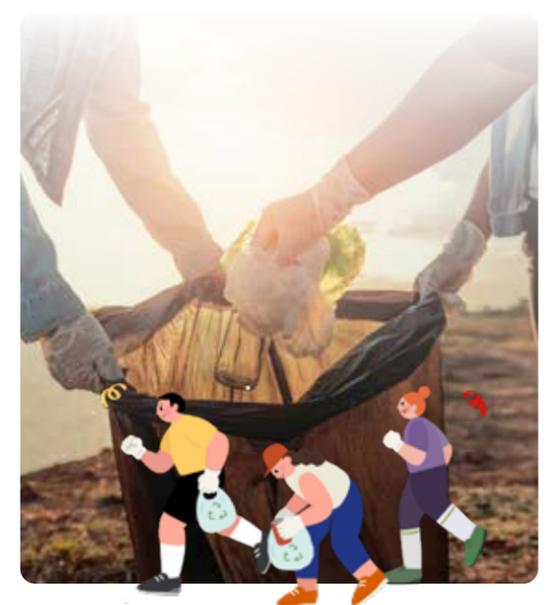


### 4

#### ‘비닐봉지 없는 날’로 지키는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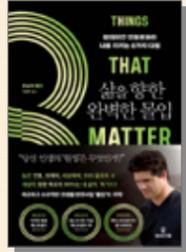
딱 하루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믿을 수 없겠지만 무려 원유 약 95만 리터와 이산화탄소 6천여 톤을 감축할 수 있다.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기억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 보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자.

비닐봉지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와 다회용 기등을 활용하면 된다. 비닐봉지를 재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꼭 필요할 경우라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비닐봉지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생활 용품을 옥수수빨대, 대나무 칫솔 등의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움직임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 비닐봉지 없는 날을 계기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구와 우리를 위해.



## 2024 상반기 결산! 하반기를 시작하는 추천 도서

여름의 시작과 함께 어느덧 2024년의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부지런히 달려온 6개월을 의미 있게 정리해 보고 남은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 보자.



###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

조슈아 베커 | 와이즈맵

SNS 중독, 불필요한 명예, 가짜 행복 등 삶의 목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일상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8가지로 구분해 '방해물'로 이름 짓고, 이것들에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마티아스 뉘케 | 퍼스트펍권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욕망해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난무하는 시대. 저자는 재치와 명쾌함이 돋이는 글쓰기로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 마흔의 품격

김철영 | 에디토리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40대에게 '품격'으로 오래 살아남는 법을 소개한다. 직장인, 사업가, 작가, 강사, 마케터 등 다양한 직업과 포지션을 경험하며 직장인 생존 전략 전문가로 입지를 굳힌 저자가 동년배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품격 요소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 독자퀴즈

#### QUIZ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와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은?

- ① 동행축제                      ②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③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7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 2024년 6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권오태(경북 영천), 백희종(제주 제주),  
우동식(대구 동구), 이학기(대구 북구),  
한상호(인천 연수)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6월호 정답 ② 초기 창업 패키지

## 7월 6·25 전쟁영웅

# 탁월한 지휘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웅수**

1923. 4. 11. ~ 2018. 2. 25.

국군 제2사단장 김웅수 소장(당시 계급: 준장)은 1953년 6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의 삼각지 내에서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와 '화살머리고지(281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휴전협상 조인을 앞두고 주요 지역을 확보하려는 적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김웅수 소장 Story

1946년 국방경비대 군사영어학교 졸업, 소위 임관

1954년 태극무공훈장 수훈

1961년 육군소장 전역

1973년~93년 미국 가톨릭대학교 교수

2018년 타계,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